

## 보광光절節

6월 19일은 조희성 구세주께서 하나님으로 환원되어 인간이 아님을 입증하시고  
쭉정이를 심판하고 알곡을 거둬들이는 깊은 뜻이 있는 날입니다.

### 남북 전쟁 막고 있으니 통일도 이루실 정도령 1981년부터 지켜온 정도령의 공약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이 성사되면 북한도 경제발전이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 상호교류 및 평화통일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흐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교주가 힘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수를 들먹이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를 거론하는 등등 탐골공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조차 자기가 남북통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참으로 웃긴 이야기다.

#### 1981년부터 남북전쟁 막겠다고 약속한 정도령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장본인은 그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밀도 끝도 없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정도령이 남북전쟁을 막은 근거는 수많은 설교말씀 속에 들어 있다.

첫째, 정도령님은 1980년 북한의 남침 계획을 무산시켰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자 '서울의 봄'이 오면서 정국은 혼란 속에 빠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은 국제사회 및 인류의 앞날에 커다란 전기가 될 것이다

다. 이런 혼란을 틈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비행기 500대를 띄워 남침을 노렸지만 김일성의 최후 공격 명령이 통신장애로 불발하고 말았다. 하나 남에서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 통신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두번째, 정도령님은 공산주의를 말살시켜 남북전쟁의 씨앗을 없앴다.

정도령의 5대공약 중 가장 핵심적 공약은 바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74년간 계속

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를 삼킨 이념이다. 좌우 이념대립은 언제라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대결장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산주의를 없앴던 것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남북전쟁 또한 3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정도령의 5대공약의 하나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세번째, 정도령께서는 남북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조종하였다. 북한은 유엔가입을 원하지 않다가 급작스런 변심을 하

여 남한보다 앞서서 유엔가입신청을 하였고,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남북전쟁 발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남북전쟁 제동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인류구원 로드맵 착착 진행돼

네번째,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바뀔 수 있게 되려면 북한 최고지도자와 대화 가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도령께서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나 김 전 대통령은 정도령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 정도령께서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을 세움으로써 천지공사를 행하고 계신다.

정도령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남북통일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빨리 이루어질 길 바라기만 하면 안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정도령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충실하자.\*

전지전능의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 당신이 육신을 벗고 분신으로 역사하는 지금도 남북전쟁을 막고 계신다.

#### 사진에서 튀어나와 몸속으로 들어가신 정도령

2009년 어느 날, 나는 내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방에 걸려있던 정도령님 존영에서 정도령님이 튀어나오더니 내 속으로 쑥 들어가셨다. 그 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천지공사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은 지금의 정도령님은 아단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능력이 강해져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정도령님은 이 세상 인류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인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5>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한다”

성경이나 불경에서 왜 나를 항상 버려라 라고 했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피가 썩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라는 말은 내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요,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성경과 불경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것이다. 이 사람은 나와 더불어 평생을 투쟁해서 나

를 이긴 자이다. 나를 완전히 이긴 이긴자이고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아는 것이다.

평상시에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피로 변해서 얼굴과 몸이 악한 얼굴과 몸으로 변하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피로 변해서 선한 얼굴과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죽지 않는 피로 변하는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총연출자 구세주 정도령 평화통일·불사영생형 인간비핵화극기승자로 해피엔딩

“평화는 삶의 기본 조건이다. 평화가 없는 정상적인 삶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적인 본능의 관점에서만 삶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생명은 어떤 성스러움의 현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살생(殺生)에 대하여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혐오감도 이것을 나타낸다.” <김우창 「빠른 삶, 느린 생각」>

#### 북미회담과 독재자의 딜레마

살생과 불안·공포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 평화와 생명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 간 세계의 담판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반도를 주 무대로 한 격정의 드라마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지원이 향후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단히 궁금해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최고 존엄'의 신변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선 개방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외부의 정보가 유입되면 독재자의 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민중 혁명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이후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인간이란 '자존심'이라는 핵을 안고 태어나서 평생 삶을 위한 지루한 핵전쟁을 치르다 죽음으로 휴전을 맞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소원하는 항구적인 평화와 온전한 생명보전을 위한 체제보장은 튼튼한 국방력이나 부유한 경제력으

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한 자기정체성 확보가 안정성 확보의正道(正道)다. '지리지적(知己知藏)이면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인간비핵화(인간완성)

대한민국에 출현한 CVIV[완전히 검증가능한 불사영생의 극기승자형 인간비핵화를 이룬 구세주 정도령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라는 의식이 6천 년 동안 "나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인간 속 하나님을 죽여온 「선악과 사건」의 주범, 숙적(宿敵) 「마귀영」이다. 예전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란, 평화·통일·생명의 신인 하나님인 분화·분열·죽임의 마귀신에게 불가항력으로 패배한 신들의 전정이었다. 시공을 초월한 무극의 하나님이 마귀신에게 포로 되는 순간 발생한 빅뱅(대폭발)에 의한 결과물이 음양의 인간과 태극의 우주다. 하나님의 신인 양심이 마귀 신인 「나」라는 욕망의 의식에 포로 된 상태가 인간이요,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갇혀 마귀의 형상으로 신의 병존체를 이룬 것이 우주만물이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양심선언이다. 역사는 현실의 힘과 어떤 동기의 움직임이 합쳐서 방향을 잡는다.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살생과 공포의 마귀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라는 강력한 진전의 진원지는 「영생 조건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핵화 이후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인간이란 「자존심」이라는 핵을 안고 태어나서 평생 삶을 위한 지루한 핵전쟁을 치르다 죽음으로 휴전을 맞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이 소원하는 항구적인 평화와 온전한 생명보전을 위한 체제보장은 튼튼한 국방력이나 부유한 경제력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승리제단」에서의 21일 수행이면 누구나 불사영생형 「인간비핵화」가 가능하다.\*

## 분신(分身)과 변신(變身)으로 행하시는 정도령 보광(普光)후에도 존영에서 분신이 나와 몸속에 들어가



간증자 김종만

나는 정도령께서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집채만 한 몸으로 나타나서 “전쟁 일으키면 죽어, 임마!”라고 외친 후 사라진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정도령께서 집채만 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크게 아단진 실제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단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다. 나는 승리제단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21일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때 정도령께서는 미국에 전도 차 출국하셨

기 때문에 한국 승리제단 본부에 안 계셨다.

#### 미국에 계신 정도령 분신으로 출현

제단에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방에 누웠는데 정도령께서 나타나셨다. 당시 나는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신으로 나타나신 정도령께서는 내게 베풀어 주는 듯한 큰 음성으로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줘?”라고 외치신 후 휘 사라지셨다. 정도령은 분신(分身)을 하신다더니 정말 분신을 하신 것이었다. 그 후 21일 교육기간 중 정도령께서는 분신으로 두세 번 내 앞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 나는 정도령 말

씀을 안 믿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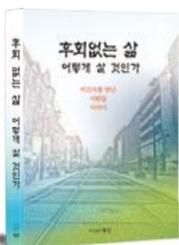
아무리 김일성과 김정일이 무신론자일지라도 실제로 집채만 한 모습으로 나타난 정도령께서 베풀어 주는 듯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순간 사라진다면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나타나서 “전쟁 일으키면 죽는다”고 말한다면 분명 그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할 것이고, 전쟁 일으키려는 마음을 돌이지 않을 수 없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죽을 작정을 했으면 모르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정도령은 사람이 아닌 이기신 하나님이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입니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교과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든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영애 4지역 지회장이 상을 받으러 나가고 있다

본부제단 5월 활동 성적을 발표한 결과 4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했다. 5

### 4지역 압도적 1등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지역은 지역 2등, 2지역은 지역 3등을 각각 차지했다. 구역 및 개인 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구역 1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2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3등: 32구역(구역장: 홍경숙)
-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2등: 김두식 승사 3등: 안경미 권사\*